



기획시리즈



김 사 일

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

새로운 조경수(Ⅲ X IV)

—누리장나무—

○ 종류와 생육특징

누리장나무 속의 식물은 주로 열대, 아열대지방에 많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 현재 우리나라에 생육하고 있는 누리장나무는 강원도 및 황해도 이남의 산록, 계곡, 해변의 양지바른 절개지(切開地) 또는 너덜경(주: 돌이 많이 덮인 비탈) 같은 건조한 토양에서 개화결실도 잘 되고 자라기도 잘 자라며 지리적으로는 중국, 일본에도 분포하고 있다.

누리장나무라고 불리게 된 것

은 나무에서 누린내가 난다 하여 누리장나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, 누리장나무에는 변종으로 털누리장나무와 거문누리장나무가 있다. 누리장나무는 낙엽활엽관목(落葉濶葉灌木)으로, 수고는 2~3m 정도 자라고 뿌리목에서 많은 줄기가 자라 덩불같은 수형(樹形)을 이루고 내한력(耐寒力, 내공해력(耐公害力), 내염력(內鹽力)이 강하며 성장도 빠르다.

○ 조경수로써의 활용가치

누리장나무는 누린내가 난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심기를 기피하여 왔으나, 외국에서는 꽃과 열매의 아름다움 때문에 정원수(庭園樹)로 많이 식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, 그린하우스(Green House)내에서 재배하여 절화용(切花用)으로 활용하고 있다.

누리장나무는 꽃이 귀한 늦여름(8~9월)에 지름 3cm 정도되는 백색꽃이 여러송이 뭉쳐서 가지 끝에 뭉뚱뭉뚱 피어 있는 모양과, 가을에 붉은 별 모양으로 벌어진 꽃받침의 한가운데 짙은 청색의 자수정을 박아 놓은 듯 맺혀 있는

〈표 1〉 누리장나무의 종류

국 명	학 명	일 본 명	영 명
누리장나무	Clerodendron trichotomum THUNB.	クサギ	Glory Bower
털누리장나무	Clerodendron trichotomum var. ferrugineum NAKAI	ビロウドクサギ	
거문누리장나무	Clerodendron trichotomum var. esculentum MAKINO	シヨウロクサギ	



▲누리장나무의 결실광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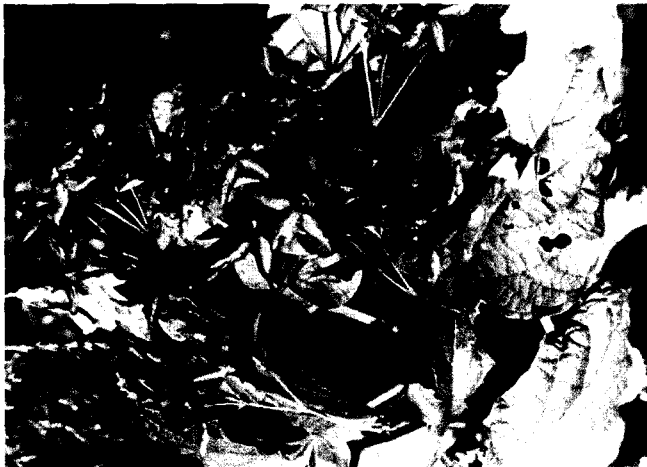
〈표 2〉 수종별 특성

수종명	잎과 가지	꽃과 열매	분포지역	생육입지
누리장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지에 털이 없음 • 잎은 대생(對生)하고, 넓은 난형(卵形), 점첨두(漸尖頭), 예저(銳底) • 잎의 길이 8~20cm, 넓이 5~10cm • 잎의 표면에 털이 없고, 뒷면의 엽맥(葉脈) 위에 털이 있음 • 잎의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큰 톱니가 있음 • 엽병(葉柄)의 길이는 3~10cm로 털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꽃은 8~9월에 백색으로 피 • 화서는 취산화서(聚散花序)로 새 가지 끝에 정생(頂生)함 • 꽃받침은 홍색을 띠며, 5개로 크게 갈라짐 • 화관(花冠)은 지름 3cm로서 5개로 깊게 갈라지며, 열편(裂片)은 긴 타원형이고 백색임 • 열매는 10월에 검푸른색으로 익음 • 열매는 핵과로서 둥글고, 지름은 6~8m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원도, 황해도 이남 지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록, 계곡해변의 양지 바른 나지(裸地)
털누리장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잎과 가지의 특징은 누리장나무와 같으나, 잎 뒷면에 갈색털이 밀생해 있는 것이 다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꽃과 열매의 특징은 누리장나무와 같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"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"
거문누리장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잎이 심장저(心臟底)이고, 끝이 뾰족한 점외는 누리장나무와 같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누리장나무보다 화서가 짧고, 꽃받침열편이 좁고 길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"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"



◀ 누리장나무의 화서

▼ 누리장나무의 꽃봉우리



◀ 누리장나무의 열매

▼ 누리장나무의 익기전 열매



열매의 모양은 마치 부녀자들의 장신구(裝身具)인 브로치(Broach), 귀고리 등과 같은 악세서리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조경수로서의 활용성은 부족함이 없으며, 각종 정원, 도로 및 철로 변의 녹지대, 공원 등에 단목(單木) 식재를 하여도 좋고, 공간이 넓으면 집단(集團) 식재를 하여도 좋을 것이다.

○ 번식 및 양묘방법

번식은 분주(分株)와 종자로 번식하며, 분주는 춘계 식목시기인 4월 상순경에 나무의 뿌리목 부근의 지제부(地際部)에서 자라 올라온 맹아(萌芽)를 뿌리와 같이 채취하여 이식상(移植床)에 이식하여 묘목으로 양성하면 되지만 이 방법으로는 묘목의 다량생산은 어렵다.

종자의 파종에 의한 실생묘양성(實生苗養成)은 가을(10월 하순)에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과육

(果肉)을 제거한 후 건조하지 않도록 보관하였다. 11월 하순경에 종자량의 3배정도 되는 모래와 혼합하여 노천매장(露天埋葬) 또는 저온저장을 하여 두었다가 이듬해 봄(4월 상순)에 파내서 m^2 당 0.2ℓ 정도의 종자를 파종한 후 그 위에 1cm 두께로 복토(覆土)를 하고 일반 파종상 관리요령으로 관리하면 된다.